**지옥에서 본 어머니(1) /토마스 주남**

****

† 지옥에서 본 어머니(1)

주님은 즉시 우리가 어제 천국 문밖에서 본 적이 있는 구덩이로

나를 데려가셨습니다...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산중턱을 걷고 어두운 터널을 거쳐

마침내 산꼭대기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입을 딱 벌리고 있는 구덩이를 내려다봤는데

그것은 너무나 넓고 깊어서 끝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무시무시하고 마음을 어지럽게 하였습니다.

주님은 “나는 네가 이것을 다시 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옥 구덩이를 보는 것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즉시 나의 관심은 내게 손을 흔들고 있는 한 사람에게 쏠렸습니다.

자욱한 연기 속에서 나는 그 사람이 여자임을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그녀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그녀는 나의 모국어인 한국말로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워! 뜨거워!" 나는 그 목소리를 알아들었습니다.

연기가 걷히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녀의 눈을 목도하였을 때

나는 즉시 그녀가 나의 어머니인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오른손을 뻗어 나를 향해 흔들며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라고 비명을 지르셨습니다.

나와 눈이 마주치자 나에게 살려 달라고 애원하시던 어머니의 눈길이

지금도 너무나 생생합니다.

바로 내 친어머니가 쩍 벌어진 지옥의 구덩이에서

살려 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심장은 멈춰 버렸습니다.

차가운 절망의 칼이 내 심장을 찔러대는 것 같았습니다.

'아, 내 어머니가 지옥에 있었다니!

내가 앉아 있는 옥석이 마치 내 머리 위에 얹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필사적으로 손을 뻗어 어머니의 손을 잡아

어머니 주위에 소용돌이치고 있는 날름거리는 불의 혀에서

어머니를 구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내 생애에 가장 괴로운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그 순간에 느꼈던 것과 정확하게 부합되는 말이 사전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두려움, 자포자기, 아픔, 공포, 슬픔과 절망감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머니가 바로 이러한 감정을 영원히 느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번역하고

토마스 주남 여사가 지은 “천국은 확실히 있다” 중에서...)